

“출산·양육 정책 여야·정부 힘 모아 추진해야”

민주 이재명 대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적극 협력 신속·근본적 대책 수립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비롯한 정부의 출산·양육 등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일 대통령실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환영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한 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들 것을 다투라더라,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어느 때보

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속한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이처럼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렵고, ‘쫓고 댄스’ 캠페인 하지는, 이것이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라고 비꼬았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면서 “이것이 도대체 뭐 연구했단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 거부권’ 방송3법 재발의

MBC·KBS 이사진 8월 퇴임 고려 ‘즉시 시행’

‘편성규약 위반시 처벌’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이 같다.

다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광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박찬대 “국회 원 구성 7일까지 결론 내야”

합의 안되면 야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 배분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제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은 이달 7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성의한 협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도 명백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도 “대통령실이 순직사건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합법적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만 내밀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했으니 감했던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수사 방해 행위였으며,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리얼미터,尹 지지율 긍정 30.6%·부정 65.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

는 0.2%p 하락한 65.9%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2.5%p ↑), 인천·경기(2.3%p ↑)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3.1%p ↓), 광주·전라(1.4%p ↓)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30대(2.2%p ↑), 40대(1.3%p ↑), 50대(5.3%p ↑)에서 상승했고, 20대(5.2%p ↓), 60대(2.5%p ↓)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p ↑)에서 상승, 진보층(1.9%p ↓)에서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

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3.1%, 더불어민주당 33.8%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고, 민주당은 0.1%p 내렸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4.5%, 개혁당 5.3%,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기타 정당 2.0% 등이었다. 무당층은 8.7%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